

일본의

양계 현황

부로일러편

1. 생 산
2. 유통

— 미 곡물협회 한국지부 제공 —



<본격적 계약 생산의 시작>

1966년초 부로일러업계는 일본 농업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변화로 인하여 1966년도의 육계생산 240,000톤에서 1968년에는 328,000톤으로 급증했던 것이다.

부로일러업계의 장래를 이토록 급격히 변화시킨 요인은 바로 계약생산 혹은 통합생산 이었다. 본격적인 움직임은 이미 1965년과 1966년에 기미를 보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례없는 파죽시세로 부로일러업계에 몰려왔던 것이다. 계약생산자에 의한 부로일러생산량은 1966년에 10% 미만이던 것이 1969년에는 6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짧은 3년동안에 그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해서 그런 단계가 이루어졌는지 밝혀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반기에 이미...>

어떤 변화이든 적절한 상황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 날 수가 없다. 이미 60년대의 사건에 의해 계약생산의 방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첫째로 소비자의 수요가 확장되었다. 1950년대의 닭고기는 고급 음식점안에서 볼 수 있는 상류사회의 요리였다. 그러한 음식점의 수요가 증가하여 밥상에 닭고기가 자주 오름에 따라 동

경과 오사카에 집중된 대량소비시장에서 계육을 취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1958년에 1인당 소비량이 1파운드 미만이던 것이 1964년에는 4파운드로 증가했으나 아직도 계육을 판매하는 주요 공급처는 제도적시장이었다. 1965년말까지만 해도 귀한 고기로서 단체 수요가 총 수요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백질 식품으로서 좀더 값싼것을 찾게되면서 일반소비가 증가되고 있었으나 흥정하는 소비제도와 여러단계를 거치는 유통구조등 비효율성 때문에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부로일러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생산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전통적인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시일내로 대량판매하는 기구로 개선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1966년도의 상황이었다.

생산업자 밖에서 볼때 상황은 상당히 상이했다. 1962년부터 농장 및 생산업자의 신용은 점점 떨어지게되어 1964년과 1966년에는 생산지역 도매상 뿐만아니라 농가들도 가격저하로 인하여 큰 혼란을 받게 되었다. 1964년도의 가격은 전통적으로 계절적 강세를 보여왔던 년말의 가격이 도매가 ₩200 이하의 가격하락 현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많은 농가 및 중간상인들이 유지할 수 없게되고 1966년에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1964년과 1966년의 부로일러업계의 침체로 인하여 업계가 대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을 주게되었다. 또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험부담을 제한하고 업계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생산관리의 제한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계약생산자의 경향>

부토일러 생산을 시작한 대농장의 수는 많아졌지만 완전하지 못한 계약제도와 일부통합계획으로 주저하면서 농장에 입주했다. 이 대농장의 일부는 가격의 침체로 인하여 심한 손실을 입었다. 사실상 그들은 중요한 때에 힘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부토일러에 관심이 있는 주요 계약생산자들은 현재와 장래의 계약생산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하기 시작 했으며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계약계획을 분석했다.

1966년의 심한 타격으로 일부 대농장은 앞으로는 완전한 계약계획이 아니면 안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그들은 조부모계의 농장으로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제도를 계획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육계가공설비 제조업자와 공동투자하여 모험을 걸었다. 곧 이어 그들은 지도적 상업회사 체제를 갖추고 생산과 유통 전부를 조절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68년과 1969년에는 완전한 통합제도를 이루게되어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 현재 최소한 8개의 완전한 대통합제도가 있고 완전통합을 목적으로하는 일부통합생산제도는 많았다.

<문제지역>

통합생산자가 해결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소매상들을 다루는 방법이다. 처음엔 전통적 육계소매상(토리야)와 계약조건으로 대부분이 접근했다. 그 결과로 통합자들은 도매상, 정육점, 슈퍼마켓, 연쇄점등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관계가 깊은 육계가공업자들을 통해서 혹은 직접 계약하는데 많은 주의를 집중시켰다. 소매상과의 계약과 같이 처리공장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 자동화된 도계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통합생산자들을 손으로 잡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소매상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전통적 소매상들은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들은 전통적인 도시도매상들의 힘으로 극복해 내리라고 믿었다. 전형적으로 동경에서의 예를들어 보면 1965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3개의 대도매상이 지배했고 가격은 농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좌우했

으며 거대한 땅의 전통적인 육계상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1966년부터 통합자들은 점점 농장과 육계처리공장과의 계약을 시작했다. 도시의 도매상들과 제휴하느냐 아니면 유대관계를 중단하느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했으나, 한곳을 제외하고 모두 3년이내로 통합자와 합병하거나 계약을 했던 재동경시장의 가격조절은 주요 통합자와 계약을 맺은 8개회사로 분산되었다.

<소매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소매상은 점점 위축되어 60년대의 중반에 90%이상에서 40%이하로 판매량이 떨어져 장사를 그만둔 사람이 많다. 그대신 정육점 슈퍼마켓 냉동연쇄점에서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빠른 발라내는 방식의 판매제도는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것은 현재 노계(산란계)에서만 나오고 있다. 육계는 부분육으로 판매하며 빠른 발라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유통혁명이 일어났다. 앞으로는 냉동연쇄점이 유망하며 현재도 도매상과 소매상에서 냉동육의 배달이 유행하고 있다. 가정소비자에게 냉동판매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며 가정소비자들은 냉동육이 맛이 없다는 편견을 잊어가고 있고 또 상당히 염가로 판매하고 있다. 동경의 부화협회는 냉동육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바로 이점이 앞으로의 소비자들에게 지속성 있는 판매경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냉동연쇄점과 기타 냉동육 판매점이 유리할 것이다.

<소비자>

지난 5년동안 가정소비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정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로 육계소비가 상당히 팽창되어 동경에서 볼때 60년대 중반기의 단계적 판매가 60% 이던 것이 현재는 일반가정소비가 총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표1」을 보면 육계생산의 발전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약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고 우선 요점을 연결해 보기로 한다.

<생 산>

통합자들은 하이부로의 G. P. S. 및 P. S.를 확보하고 종란을 공급함으로써 부화장과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들은 하이부로에만 관심을 갖었

표 1

일본의 육류생산량 1966~1968

(단위 : 톤)

	1966		1967		1968	
	생산량	%	생산량	%	생산량	%
A. 부로일러	137,000	15.0	177,000	17.6	211,000	20.9
B. 노 계 (도태계)	103,000	11.3	115,000	11.4	117,000	11.5
A+B 계 육	240,000	26.3	292,000	29.0	328,000	32.4
C. 쇠고기	156,000	17.1	145,000	14.4	146,000	14.5
D. 말고기	11,000	1.2	12,000	1.1	14,000	1.3
E. 돼지고기	505,000	55.5	557,000	55.4	520,000	51.7
F. 양고기	1,000	0.1	1,000	0.1	1,000	0.1
C+D+E+F	673,000	73.7	715,000	71.0	681,000	67.6
계		100	1,007,000	100	1,010,000	100

고 세미부로는 협동조합과 개인농장만 남게 되었다. 협동자들은 철저히 자료를 이용하여 종란 수급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일본에는 현재 18,000개의 부로일러 농장이 있으며 1966년에는 20,000개가 있었다. 농장들은 도시로부터 멀리 이주해 갔으며 동경과 오사카 근처의 지역에 있는 사육수는 전국의 평균이하이다. 관리면에서 빠다리식을 버리고 평사및 케이지식으로 변모해다.

<유통>

현재 3가지의 유통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통합, 자유협동 조합유통 개인농장유통이다. 1965년과 1966년의 계약생산은 단순히 병아리와 사료 그리고 사육업자인데 비해 통합계약은 도계처리 수송 도매 및 소매등 광범위한 계약이 특징이다. 부분계약제도는 전국적인 통합계획을 확립하기에는 재정능력이 모자란 사료공장 도시도매상등에 의해 주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 유통구조는 1965년 이래 비교적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 왔다.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통합자들의 세력팽창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 협동조합의 도시 시장거래는 중요한 소매시장을 통합자에게 서서히 빼앗기고 있으며 생산지역의 협동조합은 통합자와의 계약기구에 판매해가고 있다. 개인농장들은 아직도 생산지역과 도시지역에서 점점 쇠퇴해가는 고립된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있다.

<근래의 소비형태>

소비자그룹은 크게 일반 가정소비자와 단체소비자로 나눌수 있으며 단 3년안에 일본에서 가장 소비가 많던 단체소비를 일반가정 소비자가

증가했다. 가정소비는 전국소비량의 60%를 차지한다. 최근 정부조사에 의하면 가정소비자 구매의 24%는 부분육이며 통닭및 반 도체구매는 5%이다. 샐사미(무골 가슴육)소비는 비록 도태산란계이며 특수한 닭집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아직도 18%를 차지한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닭집에서 부로일러를 전문판매하는 슈퍼마켓과 정육점으로 구매장소가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부로일러의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됐고 점점 부분육을 구매하고 있다. 닭 요리중 가장 기호가 높은 두가지는 부분육 혹은 뼈있는 계육으로 만든 요리임이 조사에 의해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부로일러라는 용어에 점차 친숙해져 가고 있으며 그것은 부드러운 고기 부분육으로 통한다.

<가격>

소매가격은 도매가격만큼 변동하지 않는다. 1966~1969년의 가격 증가율은 3.3%로 다른 식품 가격증가에 비해 아주 낮다. 가격은 계절적으로 변동하는데 12~1월이 전통적으로 연중 가장 높다.

<이윤>

농장가격의 총 비중은 56%가 전형적이다. 통합생산화에 의해 생산지역의 이윤점이 도계공장으로 옮겨갔다. 소매이윤은 심한경우 옛날보다 30~40% 감소되었다.

<재정>

통합자들은 자금을 융자하여 부로일러 생산을 확대해 왔으며 장래의 방향을 조정해왔다. 부로일러의 구매 및 판매 그리고 공급면에서 1966년의 정책과 흡사하다.

<질병>

중요한 질병은 뉴캐슬이며 다른 질병보다 훨씬 높다. 질병에 대한 통제숫자는 산란계편에서 이미 밝혔다.

<정책>

부로일터생산에 대한 정책은 1965년 이후 변함이 없다. 관리개선면에서는 근본적인 협력을 하고 있으며 동결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소매제도의 개선에 대한 활동이 었보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농업정책의 일부이다.

생 산

생산면에 일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중계 부화및 생산농장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부화 및 중계>

원래의 중계는 여러종의 세미부로를 만들어내던 산란계 계통이었다. 수입한 부로일터 전용계와 산란계를 교잡시켜 세미부로일터를 만들었으며 하이부로 혹은 부로일터 전용종은 1965년부터 활기를 띄워 부화장은 자기소유의 중계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혹은 종란생산업자와 계약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란 계약생산과 여기에 난용종 공급자의 수가 부화장에 비해 너무 많아 생산관리 조절의 문제를 일으켰다. 부화장측의 제약제도는 재정능력의 결핍에 기인했다.

통합자들은 종란계약 생산제도의 약점을 깨닫고 자기소유의 조부모계와 부모계를 확보해 나갔다. 그때 그들은 전국의 많은 부화장과 특약을 맺어 부화했다. 그러나 위생및 부화관리의 기타 면에 소홀한 결과 1966년에 40% 이상의 종란이 질병으로 도중에 죽거나 부화되지 않았다. 부화장과 통합자 사이의 협력으로 사육난의 비율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만족한 결과를 초래했다.

근래에와서 하이부로는 거의 모두 통합자가 흡수하기 때문에 부화장은 더이상 하이부로 종란생산자와 계약은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통합자들은 세미부로나 혹은 난용종 숫병아리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않았고 협동조합 및 소수 개인농장만이 세미부로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도육 질병에 대한 저항성 사료효율면에서 1kg 이상의 비효율성이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미부로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kg당 하이부로의 생산비 1968

표 2 (단위 : 원)

A. 항목	1,000수이하	1,000-2,999	3,000-4,999	5,000수이상	평균
1) 사료비	111.0	113.0	120.3	114.8	115.3
2) 병아리비	44.7	40.3	38.4	38.1	39.1
3) 입금(노임)	20.3	16.4	12.2	9.3	12.4
4) 연료 및 물비	3.0	2.5	2.8	2.5	2.7
5) 약품비	5.3	5.9	6.7	6.1	6.1
6) 지대	0.4	0.5	0.4	0.5	0.5
7) 주택비	3.9	3.0	2.9	3.5	3.3
8) 기구 및 설비비	2.1	2.6	2.9	3.0	2.4
9) 이자	3.2	2.7	3.2	2.8	2.8
총비용	193.9	186.9	189.8	180.6	184.6
B. 부산물수입	3.7	3.4	2.2	1.3	2.2
총경비	190.2	183.5	187.6	179.3	182.4

자료 : 농림성

규격별 하이부로의 kg당 생산비 1968

표 3 (단위 : 원)

A. 항목	대형	중형	소형
1) 사료비	117.4	111.3	112.9
2) 병아리비	36.5	43.3	45.8
3) 노임	11.4	13.6	18.4
4) 연료 및 물비	2.6	2.9	1.9
5) 약품비	6.4	5.7	4.6
6) 주택비	3.0	3.5	5.0
7) 기구 및 설비비	2.2	2.7	2.9
8) 지대 및 이자	3.5	3.0	1.7
총비용	183.0	186.0	193.2
B. 부산물수입	1.4	3.5	3.7
총경비	181.6	182.5	189.5

자료 : 농림성

큰 부화장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는 통합생산자 계획의 일부야로서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통합자들은 월별 기록 및 생산량을 기초로 자체내의 예상 필요량을 제도화하여 1966년과 같은 불균형을 보강하고 그반대의 역효과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입고있다.

<생산농장>

일본 전국의 부로일터 농장은 1966년에 20,000개에 비해 근래에는 약 18,000개가 있다. 소규모는 일부 도산되었고 대군 사육자가 현저히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1965년에는 도시 시장에 가장 가까운 4개의 지역에 65%이던 것이 근래에는 도시에

서 멀리 이주하여 분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도호꾸 호꾸리꾸 도께이 류고꾸 시고

꾸와 류슈지역은 평균 사육수의 2배 이상이고 동경과 오사까근처 지역은 평균 사육수 미만이다.

표 4 지역별 농장수 및 사육수 1968(12월)

지	역	농장수 (000수)	사육수								
			1-999	1,000-2,999	3,000-4,999	5,000-9,999	10,000-29,999	30,000-49,999	50,000 이상		
혹	가	이	도	121(2,198)	25	26	18	13	18	12	9
도	호	꾸		935(11,707)	64	130	99	239	251	32	25
간	도			3,544(34,154)	460	475	744	840	848	68	79
호	꾸	리	꾸	414(5,484)	66	68	45	67	129	27	10
도			잔	1,002(12,191)	68	163	156	255	268	20	19
도	께	이		2,451(32,529)	40	284	510	657	636	157	67
긴	끼			2,370(26,886)	257	430	441	545	516	93	78
류	고	꾸		1,018(17,373)	31	141	190	242	284	61	60
시	고	꾸		1,622(21,340)	121	254	238	399	419	91	36
류	슈			4,603(34,228)	883	1,132	826	672	561	125	53

농장관리면은 빠다리식에서 케이지 및 평사식으로 바뀌었고 통합자의 지원으로 많은 농장이 평사식 난방장치를 가설하게 되었다. 빠다리식은 위생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는 질병으로 인해 이와같은 관리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90% 이상의 농장이 계약생산하며 최근에는 1년마다 균일한 출하가격으로 계약하는 경향이 있다. 20~30%가 이런 형식의 계약을 하고 있다.

하이부로는 거의 전적으로 통합농장에서 육성하고 있다. 과거엔 오사까 동경시장에서 대형육

일본 동부 지방	일본 서부 지방
혹가이도	긴끼
도호꾸	류고꾸
간도, 도잔	시고꾸
호꾸리꾸	류슈
도께이	

자료: 농림성

계를 좋아했고 1965년에는 1kg 이상의 육계는 동경에서 할인가격으로 판매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요구대로 사육기간의 변동에 의해 표준크기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미부로는 일부 협동조합과 개인농장에서 생산하며 주로 동경시장의 소형육계를 좋아하는 일부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것이다.

계절적 요인은 아직도 남아 있다. 가장 성수기는 년말이다. 년말의 수요를 대비해서 생산업자에게 부과되는 압박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동결 저장설비를 갖추려는 경향이 었보이지만 그래도 생산의 계절적 변동은 앞으로도 여전히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로 일러 규격	
		생 체 중	도계 체 중
대	특대	2.1kg 이상	1.9kg 이상
	대	1.9~2.0	1.7~1.89
중	중	1.7~1.89	1.5~1.69
	중	1.45~1.69	1.3~1.49
소	소	1.2~1.44	1.1~1.29
	소	1.0~1.19	0.9~1.09
	왜	0.5~0.9	0.7~0.89

축 김 재 춘 회장 제 9 대 국회의원 당선